

**시편:** 129장

후렴: (주는 의로우시니 악인들의 밭줄을 끊으셨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젊어서부터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내 젊을 때부터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발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찌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찌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줍에 차지 않고  
뭍는 자의 품에 차지 않으시네  
지나가는 자도 주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하거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으시느니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의로우시니 악인들의 밭줄을 끊으셨네)

**성경말씀:** 마태복음 13 장 1~9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꽃을 심었다 하더라도 꽃이 필 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참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또 왼손이 하고도 오른손이 모를 때, 그것이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신 말씀, 김준호)

---

**시편:** 140장

후렴: (주께서는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주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나다  
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다

주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걸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다

내가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다

주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그들 입술의 해가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다

내가 알거니와 주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가련한 이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성경말씀:** 로마서 8 장 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술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취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 오늘의 묵상 글:

주관을 떠나서 냉정히 객관적 사실과 맞추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관이란 자기가 주인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시편:** 119장 121~128절

후렴: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공정과 정의를 행하였으니  
나를 압박자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여  
주의 법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으니  
지금은 주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나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금보다 순금보다도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하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3 장 18~21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그러면 회개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힘쓸 것인가요? 참 회개하기 위하여 주께서 명령하셔야 되고,  
내 힘으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 속에 있는 도적과 탐심과 우상을 제 힘으로는 못 몰아냅니다(로마서 7장 15절).  
힘써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요한복음 15장 2절).

---

**시편: 110장**

후렴: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뉘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부수시리라  
그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쳐드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1 장 42~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중보기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먼지 하나라도 자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볍게 안고 가십니다.  
겸손한 영혼은 하느님이 품어 주십니다.  
불쌍히 보시고 대신 우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너무 불쌍하니까요!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시편: 11장**

후렴: (의로운 사람들 정녕 주의 얼굴 뵈게 되리라)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찜인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데서 쏘려 하는도다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나  
그러나 주께서는 주의 성전에서, 하늘 높이 옥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뵈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로운 사람들 정녕 주의 얼굴 뵈게 되리라)

**성경말씀: 시편 119 장 25~32**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중보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주님의 주장으로 제 주장을 삼게 하시고,  
주님의 의사(意思)를 받들어 저의 의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가 저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애통이 저의 애통이 되어지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20장**

후렴: (우리만은 우리 주 하나님, 그 이름만 자랑하리다)

환난 날에 주께서 우리 왕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소서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소서

왕의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왕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왕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우리다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 시편 20장에서 "왕"은 다윗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만은 우리 주 하나님, 그 이름만 자랑하리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9 장 46~48**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수도의 목적은 자기 죄를 통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하는 것은 완덕을 이룬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하고 사랑의 연緣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일치, 이것이 수도생활의 목적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

**시편:** 27장 1~6절

후렴: (주께서 나의 생명의 바위이니, 나는 아무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친다 하여도  
내 마음은 겁내지 않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군대가 진을 칠찌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나이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찌라도  
내가 오히려 안심하리로다  
내가 주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주의 집에 거하는 그것이라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숨기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두시네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라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주를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나의 생명의 바위이니, 나는 아무 두려움 없네)

**성경말씀:** 이사야 64 장 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해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중보기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하느님의 생명은 자비의 사랑입니다.

자비의 사랑만이 모든 피조물의 어머니요, 가시 같은 피조물들에게 자기 어머니이신 자비의 사랑을 주며 생명을 보호하는 겹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그 자비와 사랑의 생명체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재료를 원수로 보거나 오해를 말고, 이제부터는 호수천신이요, 하느님의 손길이요, 저의 영혼을 감싸주는 주님의 손길이요, 제 영혼을 위해서 입혀 주신 갑옷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

**시편:** 30장

후렴: (주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드려라)

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수렁에서 구하셨기 때문이라  
내 원수가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이라

주여,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 주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도다

주의 성도들아 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라  
그 노염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토록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도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토록 감사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드려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24 장 42~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보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

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우리는 진리의 제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제자이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

**시편: 41장**

후렴: (복되어라 주의 보살핌 받는 가련한 사람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요  
재앙의 날에 주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주께서 저를 지켜 생명을 주시고 땅에서 복되게 하시며  
그 원수의 뜻에다 내맡기지 않나이다

주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제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나이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퍼트리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나의 신뢰하는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마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하므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토록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다 아멘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복되어라 주의 보살핌 받는 가련한 사람들)

**성경말씀: 야고보서 5 장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신앙이란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헛풍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141장**

후렴: (주 하나님, 주께 우러러 이 몸 피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불렀으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그들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찌라도 오히려 고마운 일이며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찌라도 마다할 리 없나이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안할찌라  
그들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발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 문에 흩어졌도다  
주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하나님, 주께 우러러 이 몸 피하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5 장 1~5**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중보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힘써 옳은 일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 문제입니다.  
제가 성결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법도는 인간이 볼 것 아니요, 성의와 그의 권능에만 의탁할 것입니다.

---

**시편: 110장**

후렴: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뒤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부수시리라  
그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쳐드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2 장 18-22**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가이)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중보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24. 그리스도의 지혜의 편에 서세요

세상의 지혜는  
불화(不和)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은  
오히려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심령으로 깨달은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기 살을 내어주어도  
진실로 행복해 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이사야 50 장 7~9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 중보기도: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 3. 겸손(謙遜) (1)

예수님이 앉은 자리는 인류의 끝자리입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는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겸손함을 거부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기보다는  
자고(自高)함으로 견고해져 하느님을 반대합니다.  
교만의 악덕을 추구하는 이들은  
하느님도 그의 의지를 꺾지 못하십니다.  
예수님도 목이 곧고 교만한자들에게  
맞아 죽으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항상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굽힘이 없고  
타인을 위해 희생이 필요한 시기에는 뒷걸음질 합니다.  
교만을 사랑하는 것은 고통과 저주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교만한자를 위해서도  
자기 살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

**시편:** 49장 1~12절

후렴: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여 주시리라)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찌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에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궁하는 그들이거늘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원토록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그들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그들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원하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생각하네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지어 붙여 불렀어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리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여 주시리라)

**성경말씀:** 히브리서 10 장 32~35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중보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 33. 그리운 소망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완덕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같은 처지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느님 아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토록 주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할 뿐입니다.  
비록 고아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 있는 것은,  
궁핍의 하느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토록 찾으시기에,  
우리 또한  
하느님 그리움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

**시편: 62장**

후렴: (내 영혼아 고이 쉬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않으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항상 주를 의지하고 너희 마음 열어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러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 하나 하시면 나는 둘로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영혼아 고이 쉬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경말씀: 시편 94 장 18-19**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중보기도:**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소외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주위의 관심이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구속(救贖)함을 받으면 사막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를 것이며,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화되고,  
나무 없는 곳에 좋은 꽃나무가 필 것이고, 찔레와 엉겅퀴 대신 화초가 무성할 것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72장 1~8절

후렴: (주는 살아 계시고 그를 찬미하는 소리 그치지 않으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다스리게 하소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주께서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에 내리는 비 같이 내리며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게 하소서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주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다스리고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살아 계시고 그를 찬미하는 소리 그치지 않으리다)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 장 7

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중보기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인격의 뜻을 아시나요? 사람의 모양이라도 다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된 자격을 갖추야 참 사람입니다.  
그 자격은 사람마다 다 갖추 있지만 잘못 써서 그 자격을 아주 못 쓰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되어집니다.

잘함으로 신(神)의 성품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

**시편: 116장**

후렴: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주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로다  
귀하도다 주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여  
주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을찌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주의 궁전 안뜰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 채워드리리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4 장 32~39**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니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사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누가복음 10장 25~37절 참조)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우리의 사명이며 임께서 설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입니다.

임의 사랑은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임의 정의가 있다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임의 가슴은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자비의 가슴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임에게 하신 말씀은 곧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아 땅 위에서 상처받은 양들을 따듯이 안아주는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임의 일은 예수께서 피로 사신 양들을 먹이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따듯이 보호하여 주라고 택한 종의 일입니다.

임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누가복음 17장 10절)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

**시편:** 119장 105~112절

후렴: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나이다  
내가 맹세하고 실천하려하나니  
주의 의로운 법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여, 구하오니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험에 놓여 있으니  
주의 법은 잊지 않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니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유산을 삼았으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이 되나이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0 장 16~20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중보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사적인 마음으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세상 속에 소금으로, 희망의 불로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 17. 자아

자아는  
자기만을 사랑하고픈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은  
자신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자아는  
더 큰 우주적 하느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 시편: 110장

후렴: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뉘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부수시리라  
그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쳐드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 성경말씀: 마태복음 22 장 18-22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 중보기도:

일치의 주님, 함께하는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민족, 정치, 종교,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받기만 하는 동안에는 만족이 조금도 없습니다.  
바칠 때에 비로소 사랑을 알며,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에 감격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베풀려는 마음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123장

후렴: (우리의 눈이 주 하나님을 우러러 주의 자비를 바라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 같이,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 같이 바라나이다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열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로 우리를 업신여기며  
교만한 자의 열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의 눈이 주 하나님을 우러러 주의 자비를 바라나이다)

**성경말씀:** 시편 130 장 1~5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중보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분단의 깊은 골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사람이 폐가 병들면 죽듯이 지구의 폐인 풀과 나무가 죽으면 지구가 죽고 지구가 죽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나무가 가득한 저 산이 지구의 젖가슴이라면 풀과 나무는 산소의 젖을 내는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어머니인 지구가 죽으면 풀과 나무가 죽고 풀과 나무가 죽으면 동물이 죽고 동물이 죽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25장

후렴: (주께서 그 백성을 항상 감싸 주신다)

주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 같으니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주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주여, 착한 이들과 마음이 정직한 이들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찌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그 백성을 항상 감싸 주신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1 장 33~3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과 종교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요한복음 14장 1~2절) 네 마음속에는 하느님과 나 예수의 은총만을 넣어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죄인이 없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26장

후렴: (눈물을 흘리며 들에 씨 뿌리는 자들은 기뻐하며 거두어들이라)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같았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쳤나이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눈물을 흘리며 들에 씨 뿌리는 자들은 기뻐하며 거두어들이라)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5 장 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중보기도:**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들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람 누구 누구를 본받자 해서는 마음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참 하느님의 아들이 되고 하느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그때 희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132장 1~10절

후렴: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어 주의 거처 삼고자 하셨나이다)

주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하시면서  
다윗은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으리다  
눈 붙이고 잠을 잘 수 없고  
선잠조차 허락하지 않았나이다

주의 처소를 마련하기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계시는 성막에 들어가자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자  
주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일어나소서  
주의 안식처로 들어 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찌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어 주의 거처 삼고자 하셨나이다)

**성경말씀:** 야고보서 1 장 23~25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보다 보편적 인류애를  
먼저 생각하여 인류의 평화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우리는 사랑과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사랑하고 겸손할 때,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희생할 때 육적으로는 몰락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주를 소유하고, 인류를 소유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와 우주를 사랑하였을 때 가난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시편:** 135장 1~12절

후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주의 종들아 찬송하라  
주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아

주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주를 찬송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주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도다  
주께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치셨으니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주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적을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라

그들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며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여, 시온에서 드리는 찬미 받으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6 장 27~31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중보기도:**

교회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각처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35. 희열

목소리가 떨려오고,  
가슴이 떨려오고,  
통곡을 하며,

‘꽃을 꺾지 마시오!’

그 말에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제 영혼은 녹아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

## 시편: 113장

후렴: (온 누리가 주의 얼굴을 그리워 하도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주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네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온 누리가 주의 얼굴을 그리워 하도다)

## 성경말씀: 이사야 51 장 12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 중보기도:

모든 민족의 주님,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서로가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로 받아들이며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저를 구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다른 분을 구원하실 이도 역시 주님뿐이십니다.  
'동광원'이 아닙니다.  
'동광원'은 주님을 소개해 주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귀일원' 역시 사람의 영혼을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 믿어서 구속 받음을 증거하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시편: 110장**

후렴: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가운데서 왕권을 행사하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으니 다시는 뒤우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네 오른편에 계시니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부수시리라  
그는 길을 가다가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런 다음 머리를 쳐드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주는 멜기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나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2 장 34~40**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중보기도:**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 같이,  
저도 삼위(三位) 안에, 삼위(三位)께옵서도 제 안에 계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보내 주셔야, 저도 형제나 자매의 선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사옵니다.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시편:** 136장 1~10절

후렴: (주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성경말씀:** 요한1서 4 장 7~8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중보기도:**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배움을 받는 많은 학생이 전인격적으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학교 내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나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 오늘의 묵상 글:

오! 주님, 평화의 주님! 제 가슴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시면 한 순간도, 그 반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자비의 왕이요, 스승이요, 자비의 구주요, 참 평화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만이, 그리스도께서 절대 희생으로 완성하신 자비의 사랑만이 제 모든 해결의 비밀이요, 계시요, 진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심장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곧 절대 주님의 자비의 사랑으로만 다 풀립니다.

저는 이와 같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137장

후렴: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젖노라  
언덕의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다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 욱박하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노래 부르라 조르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찌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찌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않거나  
내가 가장 큰 기쁨을 그곳에 두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  
주여, 애들을 거슬러 예루살렘의 그 날을 회상하소서

그들 말이 훼파하라 훼파하라 그 기초까지 훼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것들을 반석에 매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으리까)

**성경말씀:** 욕기 42 장 1~6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중보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섭리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한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하느님의 생명은 자비의 사랑입니다.  
자비의 사랑만이 모든 피조물의 어머니요, 가시 같은 피조물들에게 자기 어머니이신 자비의 사랑을 주며 생명을 보호하는 껍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그 자비와 사랑의 생명체의 주인공이 되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재료를 원수로 보거나 오해를 말고, 이제부터는 호수천신이요, 하느님의 손길이요,  
저의 영혼을 감싸주는 주님의 손길이요, 제 영혼을 위해서 입혀 주신 갑옷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

**시편:** 139장 1~12절

후렴: (주여, 나를 살펴보시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찌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찌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찌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취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를 살펴보시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성경말씀:** 요한복음 6 장 14~15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몰두하기보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14. 고독(孤獨)

고독은  
하느님을 만나는 신비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멀리하시고  
홀로 고독 속에서  
아버지를 갈급히 찾으셨습니다.  
주님처럼 고독을 사랑하세요.  
고독은  
하느님의 사랑을 잉태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

**시편:** 144장 1~9절

후렴: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라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주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께 비는 이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시편 119 장 81~88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중보기도:**

국가 경영에 책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을 섬기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 오늘의 묵상 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갈 길을 굽게 하고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즐겁게 해드리고, 유쾌하게 해 드리려면 지혜를 배우며 정직과 솔직히 행해야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즐겁게 해 드릴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시편:** 119장 73~80절

후렴: (주의 자애가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주의 두 손으로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나로 깨닫게 하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라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으니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나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여 나로 살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로 수치를 당케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알리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자애가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성경말씀:** 마가복음 8 장 31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중보기도:**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죄도 조금 용서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는 걸 원합니다.  
모두 사해 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대원(大願)입니다.  
조금 원하지 말고 대원을 품으십시오.  
대원이 곧 자각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

**시편:** 122장

후렴: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했도다)

사람들이 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몹시 기뻐하였노라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서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려하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찌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람들이 주의 집으로 가자 할 제 나는 몹시 기뻐했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5 장 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님과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실수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준 꽃이라면 그 꽃이 곧 사랑의 실재입니다.  
임은 떠났어도 꽃이 있는 동산이 곧 임 계신 곳입니다.  
임이 보내신 분이 사랑이 아니고 꽃이라면 그 꽃이 임이 되고 그 꽃을 피게 하신 분이 아버지 사랑의 실재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